



보도 일시	2023. 2. 16.(목) 15:00 < 2.17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16.(목)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 오충종 (044-203-4690)
		담당자	팀 장 이재연 (044-203-4691) 사무관 김다은 (044-203-4692)

저탄소·고부가 철강으로 국제 수출 3강 달성

- 「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」 발표 -
- 저탄소 철강생산 이행안 마련 및 1,500억 원 자금조성 합의 -
- 철스크랩 산업화, 수소환원제철, 고부가신소재 등 철강산업 생태계 혁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하는 ‘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’를 열고 「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」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,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,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,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, 박성희 KG스틸 사장,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,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,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하였다.

□ 또한 회의에 앞서 저탄소 철강생산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등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*」을 체결하고 1,500억 원의 펀드 조성에 합의하였다.

* 서명자 : 산업부, 철강협회, 철강자원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 등 회의 참석 7개 기업

< 제5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요 >

- ◇ 일시·장소 : `23. 2. 16(목) 15:00~16:00 / 서울 JW메리어트 호텔
- ◇ 주요 내용 : 「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」 발표 및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」 체결
- ◇ 참석 : (정부) 산업부 장관, 산업정책실장, 산업공급망정책관, 철강세라믹과장 (기업)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,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 7개 기업 (협회)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, 임순태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장 (학·연)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, 민동준 연세대 교수

-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」에는 이창양 장관과 한국철강협회, 한국철강자원협회와 철강업계가 참여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7개 기업이 업계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.
 - 해당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철강업계,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.
 - 특히 참여자들은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‘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」(가칭)를 1분기 내 구성하고,
 -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,500억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「철강 ESG 상생펀드」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1,500억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다.
- 이번 행사는 저탄소·고부가 중심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에 대응하여 철강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청정철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·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고,
 -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,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.
- 이날 발표된 「철강산업 발전전략」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,
 - 원료-공정-제품-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‘30년까지 ① 철스크랩(고철) 산업생태계 구축, ②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, ③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, ④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.

① (원료)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을 추진한다.

-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.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.

* (중) 수출관세 40% 부과, '21년 철스크랩 수입 재개, (러) 70유로/t 수출관세('21.7), (EU) 비 OECD국 내(內) 철스크랩 수출 제한 예정('23년), (호) 철스크랩 수출제한('23.1)

-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.

-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*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,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.

* 「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」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지정고시 여부 검토 예정

- 각종 통계구축과 품질 표준 개선* 등 체계적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, 고급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작업자의 암묵지 대신 AI 기술을 활용한 고급스크랩 선별방식 도입**을 추진한다.

* (통계구축) 등급별·지역별 발생-수요-유통 등 철스크랩 밸류체인 전(全) 단계 대상 통계조사 실시 (표준개선) 시중 거래기준과 기존 표준 간 불일치 개선

**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조업기술 개발사업('22~'25, 총 250억 원)

- 또한 제강사 및 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「철자원 상생포럼」을 4월 중 신설하여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토록 할 계획이다.

② (공정) 제철·제강 공정의 저탄소·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.

-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당일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얼라이언스와 1,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- 구체적으로, ‘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‘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*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**하고 ‘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.

* (수소유동환원) 철광석 환원 시 석탄(C) 대신 수소(H)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대신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하여 철강산업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

** 「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R&D」 내(內) 전략과제 (‘23~’25, 269억원)

- 또한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,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‘30년까지 약 2천4백억 원 규모 연구 개발(R&D) 사업*을 시행한다.

* ‘23~’30, 신규 및 계속사업, 총 사업비 2,374억 원 중 국비 1,414억 원

③ (제품) 다음으로,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.

- 자동차·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용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.
- 자동차 차체 경량화,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추어 이중 소재 간 접합 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·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,
- 탄소 포집·저장·활용(CCUS)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, 신재생 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(R&D)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.
- 특히 LNG·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-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.

④ (수출) 마지막으로,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.

- 탄소규제 및 신(新)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통상여건 하에서 철강산업의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할 방침이다.
-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,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 - 또한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(對)EU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전환 및 유입될 우려에 대비하여 올해 안에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.
-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(對美)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,
 - 중동, 인도,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,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할 계획이다.
-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,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” 하고,
 - 최근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, 철강업계가 합심하여 기술개발에서 시장개척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였다.
 - 또한 “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” 라며, “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되고, 불법 파업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” 고 우려를 표하고, “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힘

- 【붙임】 1. 철강 산업전략 원탁회의 행사 개요
 2.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 개요(안)

【별첨】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(PDF)

□ 추진배경

-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인 철강을 저탄소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고 재편되는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『철강산업 발전전략』 수립

□ 회의 개요

- (목적) EU CBAM 시행 등 철강을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철강업계 대응 논의 및 『철강산업 발전전략』 발표
- (일시·장소) '23.2.16.(목) 15:00~16:00, 동대문 JW메리어트(Studio1, 지하1층)
- (참석자) 이창양 산업부 장관,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,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 철강기업 인사 7명,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, 임순태 철자원협회 회장, 연세대 민동준 교수, 산업연 정은미 본부장 등 12명
- (주요내용) △업무 협약(MOU) 체결, △사진촬영, △전략발표, △자유토론 등

□ 세부 일정 (60분) ※ 업무 협정(MOU) 체결, 모두발언까지 공개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5:00~15:06 (6')	•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MOU 체결	협약 당사자
15:06~15:07 (1')	• 기념촬영	참석자 전원
15:07~15:12 (5')	• 모두발언	장관
15:12~15:22 (10')	•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	산업공급망정책관
15:22~15:59 (37')	• 토론 (참석자 발언→토의)	장관
15:59~16:00 (1')	• 마무리발언	장관

- (제목)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
- (서명자) 총 10명
 - (정부) 이창양 산업부 장관
 - (기업)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,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,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,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, 박성희 KG스틸 사장,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,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
 - (유관기관)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, 임순태 철자원협회 회장
- (목표) 철강산업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
- (주요내용)
 - 1) 탄소중립 이행
 - (정부)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·자금 지원, 규제 애로 해소
 - (업계) 저탄소 설비·기술 투자, ESG 상생펀드 활용 및 1,5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
 - 2) 기술개발 협력
 - (정부) 국가 R&D 사업, 저탄소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행
 - (업계) 국가 R&D 사업에 업계 공동의 적극적 참여로 기술개발 가속화, 성과 확산 등 기여
- (향후계획) 「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」 분과별 운영 (23.1분기)